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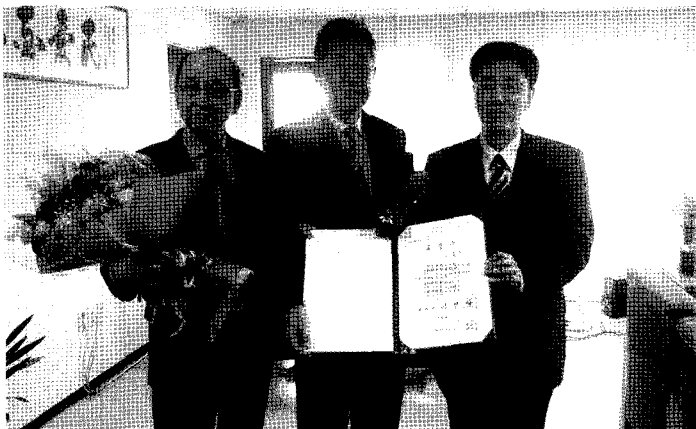
# [업계소식]

## ◆ 영림목재(주) 이경호 대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으로 선출 목재산업의 발전을 한층 도모할 것으로 전망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월 28일 제49차 정기총회에서 현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경호 이사장을 부회장으로 선출한 것. 이번 이경호 이사장의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진출은 목재업계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호 이사장은 3월 31일 언론사 오찬 간담회를 위해 목재신문과 나무신문 한국목재신문 산림환경신문에 보낸 초청장에서 '우리 목재산업의 애로와 의견을 정부 요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우리 목재산업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고 밝혔다.

## ◆ (주)골드라인 이흥기 회장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 수훈



국가보훈처의 제63주년 광복절 독립유공자 포상과 관련하여 독립운동단체등에 자금을 지원하고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여 직접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항거한 故 이좌진 애국지사를 기리기 위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수여하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음에 따라 2011년 3월 28일 국가보훈처 수원보훈지청에서 거행된 훈장 수여식에서 후손인 당사 이흥기 회장이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훈 받았다.

### ◆ KPP, KCP 일본 JPR에 필요물자 공급

후쿠시마 지진으로 전력부족 및 방사능 오염되어

지난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지진과 쓰나미 여파, 원전 붕괴로 인한 방사능 오염으로 JPR(일본파렛트렌탈, 이하 JPR)은 24일 KPP(한국파렛트폴(주), 이하 KPP)와 KCP(한국컨테이너폴(주), 이하 KCP)에 긴급 필요물자를 요청하였다.

이에 KPP와 KCP는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발전기, 방사능 기계, 연료탱크, 손전등, 건전지 등의 필요물자를 보냈으며 앞으로도 추가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PP/KCP는 JPR과 국제적 협력파트너로서 그간 많은 업무교류 및 활발한 활동으로 아시아통합물류시스템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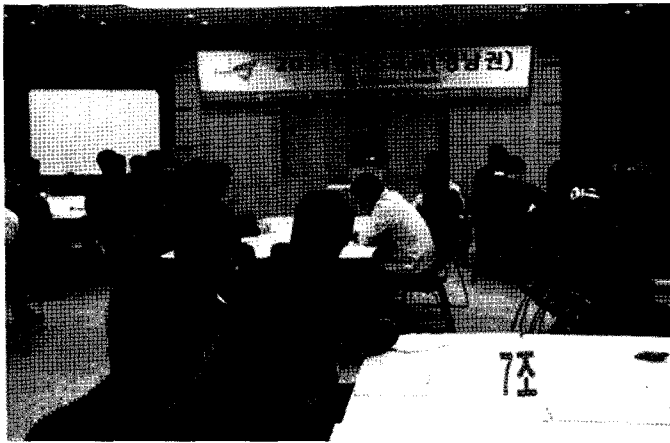
### ◆ 용마로지스(주) 서인천 출장소 개소



용마로지스(주)는 지난 2월 21일 박동환 대표이사와 경영기획실장, 영업본부장, 운영본부장, 강남북 지점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인천출장소 개소식을 가졌다.

140평의 창고와 234평의 대지에서 8대의 배송차량으로 인천 서구, 중구, 남구, 연수구 등 배송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서인천출장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59-14에 위치하고 있으며, 출장소 신설로 인하여 담당지역에 대한 오전배송, 시간지정배송 등 더욱 질 높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 용마로지스(주) 영남권 CS교육



용마로지스(주)는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CS(Customer Satisfaction)교육을 2011년 3월 14일~21일 매주 월요일에 대구컨벤션센터(EXCO)에서 시작하였다.

영남권 교육에는 동부산DC, 서부산DC, 울산DC, 경주출장소, 동대구DC, 서대구DC, 안동출장소, 마산DC, 진주출장소, 부산영업소, 대구영업소에서 총 131명이 참석하였으며, 영남권 직원 및 DS(Delivery Specialist)는 CS교육을 통해 고객만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고객에게 보다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국가 물류 표준 종합시스템 개발 사업 어디까지 왔나?

표준플라스틱 포장용기 실질적 도움 기대

지난 2008년 파렛트 표준에 대한 연구를 통해 T-11형과 T-12형 파렛트 듀얼 표준화를 주장해 주목받았던 '국가 물류표준 종합시스템 개발 사업'이 표준용기 부문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표준플라스틱 포장용기가 바로 그것. 시제품이 만들어지고 시범사업을 통해 그 효율



성이 입증되고 있어 향후 실제 도입을 통해 물류비 절감과 효율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준플라스틱포장용기의 경우 시범사업을 마무리 하고 조만간 현장에 바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농산물 유통에 사용되는 수송용기는 그물망, 소형 사각상자, 철제 파렛트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송, 보관시 해체, 재포장 등 부가적인 작업이 발생하고 있어 농산물 유통의 물류비 증가원인이 되고 있다.

국가물류표준화연구단에서 내쇼날푸라스틱과 함께 개발한 표준플라스틱 포장용기가 성공적으로 시범사업을 마무리해 주목된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한 이 제품은 바닥규격을 T-11형 파렛트를 기준으로 만들어 호환성을 유지했으며 트럭 적재함에 2단 적제가 가능하도록 높이를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 ◆ “물류시설 ‘선진화’ 아닌 ‘정상화’ 필요”

### 물류시설정책과장 물류시설 정책 변화 예고

지난 3월 17일 통합물류협회에서 주최하는 CLO 포럼에서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김동수 과장은 ‘물류시설 정책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선진화보다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혀 향후 물류시설 정책 방향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CLO 포럼에서 김동수 과장은 “물류시설의 정책방향이 너무 통 크게 진행 됐다”며 “(물류시설의 정책방향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향후 물류시설 정책방향의 변화를 예고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물류단지의 개발절차를 명확화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물류시설은 규모가 100만㎡를 기준으로 이하의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초과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가 인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향후 산업

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준용규정을 물류시설법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100만㎡ 이하의 물류단지도 국가가 개발 가능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즉 정부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 아직 입법예고도 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시행자등에 대한 규제도 완화 될 예정이다.

## ◆ 물류전문컨설턴트양성과정, 국내 현장연수 실시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석태수)가 진행하는 물류전문컨설턴트양성과정 12기 수강생들은 물류현장의 노하우와 물류관리기법 등을 배우고자 국내 현장연수를 실시했다.

지난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현장연수는 북센 파주물류센터를 시작으로 용마로지스 안성물류센터, 현대로지엠 대전허브터미널, 아신 서울종합물류센터 등 우수물류현장을 견학했다. 물류센터장과 현장작업자의 실질적인 설명을 청취하고 현장을 견학하며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번 현장연수에 참여한 농협중앙회 윤성록 차장은 “물류센터 직원들의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과 책에서만 보던 설비와 운용방법을 직접 확인하여 물류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물류전문컨설턴트양성과정은 2005년 개설되어 물류전락교육, 인적네트워크 구축, 정보교류를 통해 물류컨설턴트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269명의 물류전문컨설턴트를 배출하여 국내·외의 제조, 유통, 물류기업에서 활약하고 있다.

## ◆ 이견산업 가공, 유통 관리인증(FSC CoC) 획득



친환경 건축자재 전문기업 이견산업(회장 박영주)은 세계적 권위의 산림인증 기관인 '국제산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 이하 FSC)로부터 FSC CoC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FSC CoC(Chain of Custody) 인증이란 합법적인 조립과정과 벌목을 통해 확보한 목재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자연친화적인 제품임을 국제적 권위의 '국제산림관리협의회(FSC)에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 ◆ 산업차량BG 초대형 지게차 DV180S-7 1호기 출하 기념행사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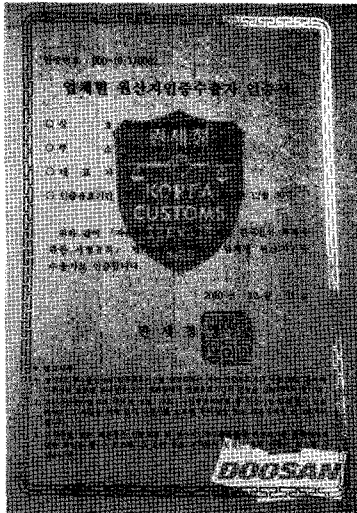


산업차량BG는 지난 2년의 개발 기간 끝에 탄생한 18톤급 지게차 (DV180VS-7) 1호

기 출하행사를 고객사인 (주)남영중기 사업장에서 12월 9일 개최했다. 산업차량BG가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온 18톤급 지게차를 국내 최초로 개발 출시함으로써, 향후 국내 초대형 지게차 시장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산업차량BG 김인성상무는 “DV180S-7는 수입 제품을 능가하는 성능과 품질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들의 사업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지게차를 적극 개발, 공급하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 ◆ 두산인프라코어 'FTA 원산지 인증 수출업자' 자격 획득



두산인프라코어는 2010년 12월 말에 건설기계 및 산업차량 업계 최초로 'FTA 원산지 인증 수출업자' 자격 인증을 획득했다.

관세청에서 2010년 4월부터 시행해 온 'FTA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는 원산지 검증 능력 및 법규 준수도 등을 엄격히 심사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에게 부여하는 인증제도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번에 'FTA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등록됨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한-EU FTA 조항에 따르면 1회 (건별)에 6천 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인증 수출업자만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부분 유럽 수출 건이 6천 유로 이상이라 상당한 혜택이 예상된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나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복잡한 서류 제출 및 원산지 확인 절차가 생략될 뿐만 아니라, 인증번호만 기재하고 서명은 생략해도 돼 수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 ◆ 내쇼날푸라스틱(주), 홈페이지주소 변경

플라스틱관련 제조업체 내쇼날푸라스틱(주)의 홈페이지가 변경되었다.

내쇼날푸라스틱(주)는 기존의 <http://www.nplastic.co.kr>로 사용하던 홈페이지 주소를 <http://www.npc.co.kr>로 변경하였으며, 기존의 홈페이지 주소도 사용이 가능하나 공식



홈페이지는 <http://www.npc.co.kr>로 변경되었다고 지난 2월 27일 발표하였다.

## ◆ 플라스틱 성형기술의 고품질화를 위한 기술 세미나 ‘한·일 플라스틱 성형기술 포럼’ 개최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조봉현)는 일본플라스틱공업연합회와 공동으로 2월 10일(목)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한·일 플라스틱 성형기술 포럼’을 개최하였다.

일본 플라스틱 성형기술 전문가를 초청하여 개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일본플라스틱의 현황과 전망 ▲플라스틱성형기술의 고품질화 ▲인젝션블딩기술의 성장 및 사출성형기계에 관한 일본메카의 전반기술 동향 등의 발표가 있었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국내 플라스틱성형가공제품의 고품질화를 모색하고, 국내 플라스틱산업의 대일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한편, 이 포럼은 지식경제부의 지원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하는 한일 업종별 단체간 기술교류협력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 ◆ RFID 활용의 근간, RFID 표준화 동향 알아야

국내외 RFID 산업 및 표준화 동향 공유 세미나 개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는 지난 12월 8일 코엑스에서 RFID 유관기업, 기관 및 학계를 대상으로 ‘국내외 RFID 산업 및 표준화 동향 공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서는 철강, 전자, 의류, 물류, 유통 등 각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RFID의 국내외 산업 동향과 RFID 활용의 근간이 되는 표준화 동향을 공유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양대학교 최명렬 교수의 ‘국내외 표준화 동향’, 아시아나 IDT 조민완 차장의 ‘국내 RFID 업계 동향’, 대한상공회의소의 배경한 팀장의 ‘EPCglobal 최근 동향과 대한상의의 모바일서비스 소개’, 경기대학교 김현수 교수의 ‘CE IUG 활동 동향’, 삼성SDS 김동훈 책임의 ‘Discovery Services 표준화 동향’, 세연테크놀로지 손영전 대표의 ‘RFID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 및 ROI 도출’ 등의 발표가 있었다.

## ◆ “DIY용 목재, 입맛대로 고르자” 와이엘 매장

DIY를 즐기는 취미 목공인이라면 원하는 규격과 무늬의 나무를, 그것도 소량으로 판매하는 곳이 없어 애를 먹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DIY 문화가 확산되고 목재의 소량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다품종 소량 판매를 병행하는 업체들도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

이런 추세 가운데 영림목재의 하드우드 판매법인인 와이엘(대표 성열찬)이 ‘DIY·목공방·목공동호인을 위한 전시 판매장’을 오픈해 취미 목공인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지난 1월 11일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서 새롭게 문을 연 와이엘 매장에는 목공 DIY 소재로 많이 쓰이는 참나무, 월넛, 체리, 메이플 등 하드우드 및 각종 집성재를 갖춰 놓고 소비자들을 맞고 있다. 모든 제품은 4면 대패가 된 상태로 샌딩, 재단 가공까지 제공하므로 집에서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없는 DIY 목공인들의 수



고를 덜어준다.

## ◆ 목재공업협동조합 44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경호)의 제44회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2일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 이경호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조합이 정한 목표치를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근사치에 가까워져 고무적이라 생각된다.”며 “그러나 정부정책에 참여하지 못한 점이 아쉽고, 금년에는 꼭 이뤄내겠다. 아울러 공공시설물의 경우 목제품의 품질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해외시장 공략도 목재산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개선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회에 참석한 산림청 산림자원국 박종호 국장은 축사를 통해 “산림청이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국내 임목생산 분야와 해외 목재가공시설 지원 등에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양한 정책건의를 부탁 드린다”며 “산림청은 이제껏 목재산업을 시장에 맡기는 차원이었으나,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목재산업을 지원대상으로 삼아 정책을 꾸려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 목재업체, “번들 풀고 소비자에게 가까이”

목재업계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오랜 세월 중간 유통상이나 가구회사 등 업체를 상대로 번들 판매를 고수해왔던 목재시장에 최근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소량판매를 실시하는 곳이 하나 둘 늘고 있다.

영림목재는 지난해 특수목 사업부를 분리, 새로운 법인인 '와이엘'을 설립하고 DIY 용 하드우드 판매에 나섰다. 또한 경방기업도 2008년부터 '하샤'라는 인터넷 목재 쇼핑몰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DIY 목재를 판매해오고 있다.

와이엘의 성열찬 대표는 “최근 가구회사나 약기회사 등 하드우드 빅 바이어(Big Buyer)들의 소비가 크게 감소하고 제조가 중국 OEM으로 많이 넘어가면서 하드우드 시장 규모도 축소된 대신 DIY 문화가 확산되면서 일반 소비자층의 수요는 늘고 있다”면서 “이 시장을 겨냥해 다품종 소량판매를 통해 목공인들에게 문턱을 낮추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 ◆ 한국통합물류협회, '국제물류기기전' 개최키로

6월 킨텍스에서 국제포장기자재전시회와 동시개최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주)경연전람(대표 김영수)와 공동으로 '국제물류기기전(Korea MAT 2011)'을 개최한다.

오는 6월 14일(화)부터 17일(금)까지 총 4일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물류기기전(Korea MAT 2011)'은 특히 올해 15회째를 맞는 '국제포장기자재전(Korea Pack 2011)' 등 유관 전시회와 같은 장소, 같은 기간 개최될 예정으로 관련 업계의 많은 참석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최예정인 '국제물류기자재전'은 운송, 보관, 분류 및 물류정보 시스템 및 기기, 컨테이너, 파렛트, 물류창고, 산업용 트럭차 등 In-factory물류에 관련된 전시품목을 대상으로 참가업체를 모집하고 있으며, 전시품목과 관련된 물류기술 세미나, 물류창고업 대상 정책간담회, 그린물류 컨퍼런스 및 관련 업체들의 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예정되어 있어 관련업체를 비롯해 유관기관, 학회 및 물류관련 종사자들의 많은 참관도 예상되고 있다.

## ◆ 물류 S.C 교육, 물류기업에게 큰 호응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진행하는 '교육훈련혁신센터지원사업(SC사업)'이 물류기업 재직자에게 큰 교육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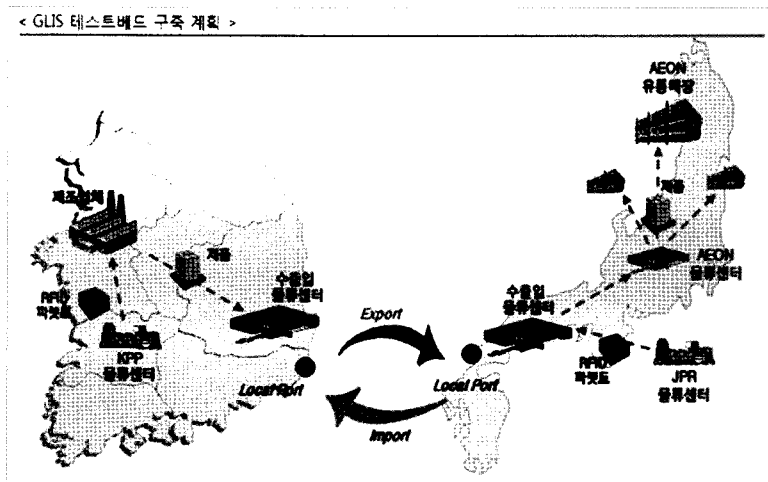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 3월 29일 엘타워(서초동)에서 개최한 'S.C 세미나 및 워크숍'에서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한 제2기 SC교육 성과발표를 했다. 5979명이 교육훈련을 수료했으며,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교재, 보조매체 등 33건을 개발했다. 그동안 물류산

업분야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재직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표준교육훈련체계가 종합적으로 수립되지 못하고 수요분석 등 기초 조사가 미흡한 상태였다.

이에 협회는 물류인력의 수요조사와 분석, 11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직종구조분석과 직무분석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였고, 기업체에 확산 및 보급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편 이번행사는 정부지원 교육훈련혁신센터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재직자의 직무능력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영자 조찬세미나, HRD세미나, 워크샵 등이 진행됐다.

## ◆ 한·일 글로벌 SCM RFID 테스트베드 구축



한국과 일본 간 글로벌 공급망관리(SCM) RFID 테스트베드가 구축된다.

LG히다찌(대표 최종원)는 지식경제부 지원을 받아 수행 중인 ‘고신뢰성 글로벌 물류정보동기화 기술개발(GLIS)’ 사업의 글로벌 테스트베드를 일본 최대 유통업체 AEON에 구축한다고 지난 1월 26일 밝혔다.

LG히다찌는 이달부터 적재용 팰릿업체 한국파렛트풀 계열사 유로지스넷, 일본파렛트렌탈 등과 협력해 AEON에 ‘GLIS 기반 스마트 SCM 테스트베드’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AEON에 구축되는 테스트베드는 국내 생활용품 제조사가 AEON에 납품하는 40피트 크기 컨테이너 50대 분량 상품에 적용된다. RFID 태그가 내장된 팰릿에 상품을 적재하고 해당 파렛트를 컨테이너에 실으면 적재·컨테이너·운송정보 등이 물류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송화주, 수화주, 물류업체 등에 전달된다.